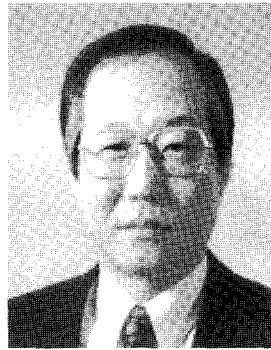


병마개 시장의 선두주자

최상의 시설로 최상의 제품 공급

연혁

- 1965. 05 삼화왕관 공업사 창립
- 1966. 01 삼화왕관(주) 발족
- 1970. 12 미국 COCA-COLA(주)의 병마개 규격 및 위생시험 합격
- 1972. 12 남세 병마개 제조업자 지정
- 1973. 03 일본 동양제관(주)와 기술제휴
- 1974. 05 CROWN K.S 표시허가 취득
- 1976. 12 성수동 공장 가동
- 1977. 04 국내 최초로 병마개 수출개시
- 1977. 05 안양공장 및 본사사옥 신축
- 1978. 05 전국 QC 경진대회 동상 수상
- 1980. 05 영천공장 신축 가동
- 1982. 01 PE CROWN LINING M/C 국산화
- 1986. 07 PLANT 국내·외 판매개시
- 1988. 12 반월공장(제2공장) 준공
- 1992. 04 본사 신사옥 준공
- 1994. 12 두산그룹 계열사로 편입
- 1996. 10 PLASTIC CAP 생산개시
- 1996. 12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선정
- 1997. 04 반월 제1공장 준공 및 안양공장 이전
- 1998. 10 White Cap 생산개시



◀ 백준기
삼화왕관(주) 대표이사

회사설립

병마개는 밀봉과 봉합기술로 내용물의 안전보존 즉 내용상품이 외부 환경에 의해 변질, 변패 등을 막고, 의도적인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며, 이 때문에 이용기술이 많은 진보를 이루어 오고 있다.

삼화왕관(주)은 1965년 삼화왕관 공업사로 창립돼 국내 최초로 병마개사업에 진출해 줄곧 병마개 생산에만 주력하여 약 37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문병마개 제조업체이다.

1972년 남세 병마개 제조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1973년 일본 동양제관과 기술제휴로 한층 더 우수한



▲ 삼화왕관(주)이 생산하는 각종 병마개 제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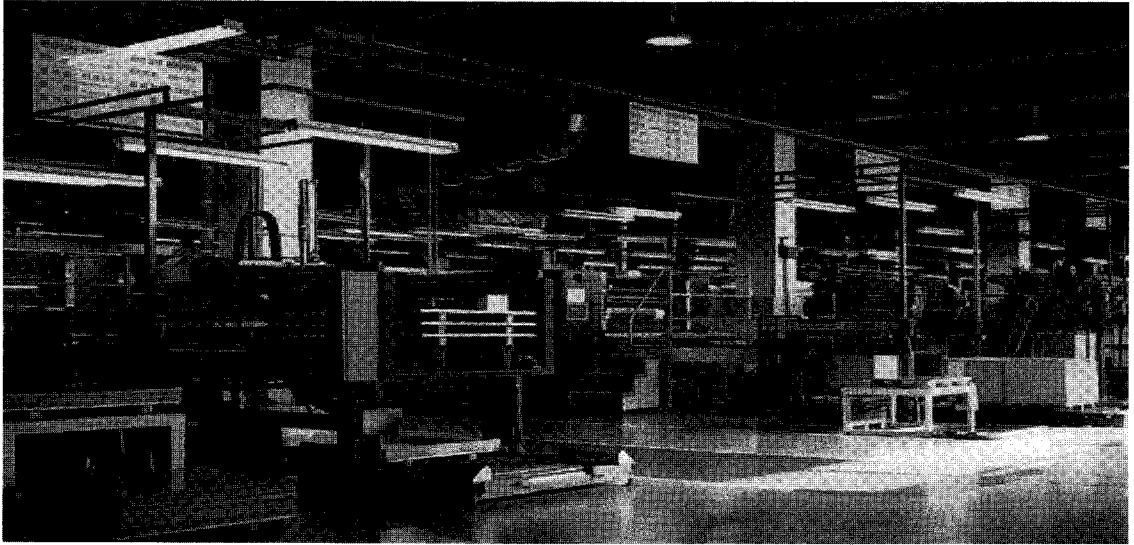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KS 표시허가 획득은 물론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지정된바 있으며, 국내 최초로 병마개 수출을 개시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의 문을 여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삼화왕관(주)은 이미 세계적 음료회사인 코카콜라사를 비롯해 일본, 홍콩, 러시아,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 병마개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국내 cap 시장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삼화왕관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lastic, White Cap은 물론 Crown cap, ROPP cap 등 다양한 병마개와 금속인쇄사업, 병마개제조 plant설비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내 선도기업인 삼화왕관은 시장수요 예측 및 분석, 이에 맞는 제품 공급으로 병마개 시장을 선

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수익성이 꾸준한 증가곡선을 이루고 있다.

다양한 제품생산

삼화왕관(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설비 전 공정을 다 갖춘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삼화왕관(주)에서는 crown cap와 ROPP cap, plastic cap, Whitecap 생산은 물론 병마개 및 CAN의 금속인쇄설비까지 갖추고 있다. Crown cap과 6개 라인에서 약 6,598백만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ROPPCap는 12라인에서 7,613백만개, PLASTIC cap는 3개 라인에서 777백만개,



▲삼화왕관(주)의 병마개 인쇄 공장 내부

whitecap은 3개라인에서 466백만개를 생산하고 있다.

삼화왕관(주)이 국내 최초로 공급한 크라운 병마개는 강력한 밀봉력으로 병 내용물의 맛을 순수함과 청결함을 그대로 보존해 품질을 보증 받고 있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련된 외관을 갖고 있으며 왕관의 표면에 상표를 써넣을 수 있어 광고효과까지 더하여 준다. 특히 병마개의 이면에 얇은 코르크 디스크를 붙일 수 있어 내용물 액체를 병마개의 금속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내용물의 변질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ROPP 병마개는 허리부분에 절취선(Perforation)과 연결부분(Bridge) 띠가 있어 병마개를 비틀면 연결부분이 떨어져 나가 오픈너 없이 편리하게 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분리된 링을 보면 제품의 내용물이 안전하게 보존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소재로 녹 발생의 우려가 없기 때

문에 자양강장제, 소주, 청주, 과일주, 민속주, 양주 등에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병마개는 병 사이의 접촉에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말아야 함으로 병의 입구부와 마개의 품질이 대단히 중요하고, 가공정밀도, 허용 오차는 엄밀하게 관리되어야 하기에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

주스, 탄산음료 생수, 소주 등에 많이 쓰이며, 안전하고 가벼워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삼화왕관(주)에서는 연간 466백만개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이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 Whitecap는 처음 개발한 미국 최고의 마개 생산 회사인 White사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Whitecap는 금속제 진공병마개로서 방부제 없이도 식품을 장기간 신선하게 보존시켜 줄 수 있어 위생성, 편의성, 안정성 면에서 다른 마개보다 탁월해 고급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삼화왕관(주)가 몇해전 IMF를 극복하고 또한 현재 국내 최고의 전문 병마개제조업체로 성장할 수 있

었던 것은 백준기사장의 공격적 경영방침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삼화왕관이 속한 두산그룹은 1995년 IMF 이전임에도 창업 100년과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당시 외형성장에 주력하던 국내 대기업과 달리 남보다 앞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이에 삼화왕관도 공장통합, 유희부동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과감히 실시함으로써 IMF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이로 인해 IMF상황에서도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을 주주와 나누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삼화왕관은 종업원 재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회사를 단지 생계수단을 위해 다니는 시대는 가고 회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새로운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어 나가는 것이라는 기업의 신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선 넓은 시야를 갖게 하기 위해 전 사원 대상 현지체험프로그램인 유럽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전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필요한 과정을 학습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관련해서도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이는 삼화왕관(주)는 올해 매출은 수익성이 양호한 WHITE, PLASTIC CAP의 판매호조로 인해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된 752억원, 영업이익은 73% 증가한 125억원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PET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Plastic cap의 증가와 영양음료 등 180ml 소형병 증가로 인해 화이트 캡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량음료 및 자양강장제에 대한 특소세 폐지로 인해 소규모 업체들의 가격경쟁으로 비납세

병마개 시장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과다 경쟁으로 인해 원가 하락은 물론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삼화왕관(주)은 국내 최고의 기술경쟁력과 공격적인 영업으로의 전환등으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특소세 폐지이후 결산실적에서 오히려 매출 및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특소세폐지로 더욱 심화되는 비병마개시장 방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리더컴퍼니의 지위를 수성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다.

삼화왕관(주)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병마개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항공캡 개발 등으로신시장을 개척하고 또한 국내시장의 정체를 탈피하기 위해 특히 동남아,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매출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특별 소비세제도 폐지로 인한 비납세 병마개 시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TOP활동 등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적인 원가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첨단, 기술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폭으로 전통 제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유행에 편승한 업종에 있기 보단 기업의 전문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자신의 분야를 끊임없이 개척해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삼화왕관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업은 어려운때 일수록 빛을 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최근 IMF 등 국가적위기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삼화왕관(주)의 활약을 주목해 본다. ☞

권해진 기자